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과 우리가 할 일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영채

머릿말

요즈음 우리 농촌에서는 어수선히 넘어 한숨으로 땅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천정부지의 사료 값,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축질병, FTA의 파고와 수입쇠고기에 얽힌 이런저런 걱정,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놓고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혼란과 의구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한편 언론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들이다. 그렇다고 다 긍정할만한 말도 아니다. 쇠고기건 조류인플루엔자건 간에 우리는 감정만을 폭발시킬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으니,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느니, 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귀신같은 전능한 사람들 같기도 하다. 여론으로 과학을 해석하고 힘으로 질병을 정복하려는 듯 보이기도 한다. 눈으로 보이는 도망가는 범인도 못 잡는데,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왜 못 잡

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는_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원인이다.

오늘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미 1918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H1N1)하여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낸바있다. 그 후 이 지구상에는 거의 끊일 날이 없다. 또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심하고 치료의약품이나 백신의 개발 비축이 그리 쉽지 않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의 경우에도 발생과 전파에 있어서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따라 온 지구를 에워싸고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은 식용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발병할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둘째로_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왜 이리 많이 발생 하는가?

옛날에는 동물의 사육두수가 적고, 분산되었으며, 사람의 왕래나 물동량이 적어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되고 종식되는 수가 많았다. 가축이 죽으면 삶아먹고 나면 그만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식생활 구조가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다. 고기, 우유, 계란 등 축산식품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만큼 식용동물의 사육두수도 증가 하였다. 즉 식용동물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으로 집단화, 단지화하여 대형사육체계로 변화하였고, 따라서 사육밀도도 높아지고 질병의 발생이나 전파도 쉽고 빠르게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변했듯이 질병도 사람이나 물류를 따라 온 세계가 1일 전파권으로 변했다. 사람과 물류를 통제하고 차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염병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완전퇴치 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하여 사람이 하늘을 가리고 살수는 없다. 날아가는 철새를 따라 하늘을 가리고 닭과 오리 를 기를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한편 나라에 따라서는 악성전염병이 발생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고속도로를 차단하거나 축사를 소각처분 하는 등의 초강경 수단을 쓰는 나라도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권까지를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둘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세번째_ 질병은 발생할만한 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오늘 날 2만 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향하고, 세계경제 12위, IT, BT, NT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나는 수년전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전북의 왕궁단지를 다녀온 적이 있다.

또 며칠 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의 용지면에 다녀왔다. 한마디로 그간 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기적 같은 현상이었다. 이 두 곳은 다같이 6.25이후 정착촌으로, 다음은 한센병 환자의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마을로 그들이 생계수단으로 집단적으로 돼지와 닭을 사육해온 곳이다.

그야말로 2만불시대, 분배와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외쳐온 우리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였던가 싶다. 때로는 행정력이나 사법권이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날 우리는 탁상공론, 숫자 노름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일찍이 지도자들이 왕궁단지나 용지의 현장을 사실대로 답사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식으로 일부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과거 농림부에 맡겨 놓고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넷째는_ 신뢰는 질병도 막아 낼 수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는 불신의 사회 불신의 시대란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말을 못 믿고, 정부는 국민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는 것 같다. 농민은 가축이 죽어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은 얼마를 언제 보상받을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 또한 국민이 얼마

를 손해 봤는지 국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농민은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어갈 때 가축값을 따져본다. 보상가격이 높으면 신고도 하지만 간혹 외지로부터 가축을 더 들여다 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간혹은 보상가격이 낮으면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새 저 멀리 시장으로 출하한다고 한다. 또 신고하면 말썬이 생기니 빨리 팔아 없애 버리자는 사람도 있다고도 한다. 결국 불신 속에 나만의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과 같이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의롭고 신의가 생명같이 존중될 때 우리는 질병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농가도 할 일은 해야한다.

가축의 등록제, 쿼터제, 신고제도의 말이 나오면 농민들은 벌써 세금과 연계하고, 정부를 의심한다. 정부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국가경영을 위한 축산물의 수급, 질병대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것을 가장먼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축사에서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방역망의 구멍을 막고, 초동대처로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여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전염병의 방역은 조기발견, 신고, 차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한 농가의 무관심, 실수, 과욕이 온 축산농가와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또 소독을 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지연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소독을 기피하는 농가

가 있다는 것도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섯째, 정부도 할 일을 더 과감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고정관념, 숫자노름의 벽을 깨야한다. 시대는 크게 변하는데도 언젠가 만들어진 그 틀, 그 숫자를 불변의 진리로 알고 몇%를 올리고 내리는 초등 수학적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떤 곳은 인력이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하다. 관리직, 감독직은 해마다 늘어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인력은 감소되고 있다. 이번에 김제시와 정읍시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김제시청과 정읍시청의 인력은 물론 농수산식품부의 동물 방역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 및 지원 간부 및 직원들까지 총동원되어 밤을 새워 현장을 수습하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현상이었다.

보고를 받고 감독하고 상황실을 다녀가는 인력이 많을수록 현장의 인력은 줄어들고, 현장은 고달픔만 가중되고 일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방역인력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도 큰 문제점의 하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너무 아쉽다.

또 전염병은 언제나 긴급을 요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금을 비롯한 방역장비나 약품의 공급은 충분한 양이 현장에서 신속이 공급되어야 한다. 방역이나 검역은 신속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절약하고 늦추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됐다는 보고가 없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도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주길 바란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만일에 대비한 조류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제와 백신을 개발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천수만이나 금강 하구언에서는 매년 환경단체나 사진작가들이 텐트를 치고 철새들의 모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1주일씩이나 철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때 방역인력은 밤을 새워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리둥절해진다. 또한, 국무조정실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일곱번째 방역 및 소독장비의 표준화와 전문가의 교육훈련이다.

우리나라의 농축산기자재를 비롯한 방역 및 소독용 장비는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을 위한 소독장비의 경우, 주택이나 공장과는 달리 소독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동거리가 먼 것이 특징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독기에 탑재된 소독액 용기는 1톤정도의 용량으로 되어있다. 이것보다는 큰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방역 및 소독장비의 표준화와 사용자의 교육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단방역용 소독기계설비의 설치에 긴급을 요한다. 그러나 기종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경험이 있는 인력의 이직으로 차단 소독장치를 설치하는데 2~3일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방역인력에 의한 기계설비의 설치나 가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고장수리 등 AS에도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맺는말

우리나라의 국경검역이나 방역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높이평가 되는 수준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에 대하여 앞에서 개략이나마 언급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개방화,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염병도 전 세계가 1일 전파권으로 변화된 현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하여 발생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날의 낡은 틀을 깨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기초위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